

이야기 38

전인 치유

한 생명의 보호로부터 역 한 정거장까지

일본 오사카에 요도가와 기독교 병원이 있다. 2차 대전 후 폐허가 된 일본으로 돌아온 미국 장로교 선교부는 1955년, 미국 장로교 여선교회의 생일 헌금 전액(\$208,077)을 오사카 빈민 지역에 의료 진료소를 세우는 사역에 헌금했다.

목마른 땅에 내린 비

목마른 땅에 빗물을 주듯 이 사랑의 씨를 뿌리를 내리고 성장했다. 2009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사립 의료 기관으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기관으로 자랐다. 병든 자들의 신체 치료에만 치중하지 않고 '전인 치유(Whole Person Healing)'를 표제로 사역한다.

이른둥이(preterm baby) 전문 치료 → 노인 요양 병원까지
자택 방문 간호사 → 가족과 함께하는 임종실까지
일본 최초 유아 임종실 운영
chaplain 부서 운영 → 병원 직원, 환자와 가족의 영적 건강을 돌봄

5만 명의 탄원

2005년경, 시내에 분산된 병원을 하나로 통합하고 첨단 의료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병원을 이전해야 한다는 결정이 났다. 충분한 대지를 확보하려면 근교 도시로 이전해야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주민 50,000명 이상이 오사카 시 정부에 탄원서를 냈다: “이 병원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적당한 장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결과, 오사카 시 정부는 예전에 상수도 정비장으로 쓰던 대지를 경매 없이 병원에 매각했다. 3년의 건축 끝에 병원은 예전 자리에서 기차 한 정거장 떨어진 곳에서 전인 치유의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다.

두 가지 기억

- 1955 미국 장로교 여선교회 생일 헌금 전액 \$208,077 — 오사카 빈민 지역 진료소 설립
- 2009 일본 사립 의료 기관 3위 성장 — 전인 치유 사역 중
- 2005+ 이전 결정 → 주민 50,000명 탄원 → 시정부 특별 매각
- 이전 후 같은 금액 \$208,077을 동남아시아 의료 선교에 헌금

계속 되는 선물(gift that keeps on giving)의 상징.

새로 이전한 부지는 오사카에서 천민 취급 받는 도살장 일꾼들이 사는 동네였다. 그곳 주민들조차 그 동네에 사는 것을 수치로 여겨, 한 정거장 더 지나서 아와이 역에서 내려 되돌아 걸어 집에 가곤 했다.

병원이 동네에 들어온 후, 주민들은 이제 자기 역인 소젠지 역에서 내린다.

전인 치유만이 아니라 온 동네까지 치유하는 경우.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자세로 서는 것 자체가 이웃 사랑의 기본인가 보다.

소그룹 나눠 자료

이 이야기는 세 겹의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전인 치유란 무엇인가. 둘째, 씨앗 하나가 어디까지 가는가 — \$208,077이 70년을 건너 돌아옵니다. 셋째이자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한 것은 소젠지 역 이야기 — 기관 하나의 존재가 동네 전체의 수치심을 바꿉니다.

— 교회 공동체 —

20-35세

도입 (5분)

- ‘치유’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신체 치료인가요, 아니면 더 넓은 무언가인가요?

본문 나눔 (20분)

- 전인 치유(Whole Person Healing)가 단순한 의료 서비스와 어떻게 다른가요? 그 차이가 왜 중요한가요?
- \$208,077이 1955년에 심어져 70년 후 같은 금액으로 다시 흘러갑니다. 씨앗 헌금의 이 여정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 주민 5만 명이 탄원서를 냈다는 것 — 병원이 그 동네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무엇이 말해주나요?
- 소젠지 역 이야기 — 병원이 동네에 들어온 후 주민들이 자기 역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치유’라면,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치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나요?

성경 연결 (10분)

누가복음 4:18 —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 예수님이 선포하신 치유의 목록 — 이것이 요도가와 병원의 전인 치유와 어떻게 닮아 있나요?

삶에 적용 (5분)

- 지금 내 주변에서 신체 이상의 치유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인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은?

36-60세

도입 (5분)

- 어떤 공동체나 기관이 그 동네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본문 나눔 (20분)

- 전인 치유 — 신체, 정서, 영적 건강을 함께 돌보는 것. 교회가 이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씨앗 헌금이 70년 후 같은 금액으로 다시 흘러간다는 것 — 이것이 지금 우리의 헌금과 섬김에 어떤 시각을 더해 주네요?
- 소젠 지역 이야기 — 기관 하나의 존재가 동네 전체의 수치심을 바꾼다. 이런 종류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과 더 큰 영향력을 위해 이전하는 것 — 이 병원의 선택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성경 연결 (10분)

예레미야 29:7 —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 바벨론 포로기에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명령 — 요도가와 병원이 오사카 빈민 지역에 뿌리 내린 것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삶에 적용 (5분)

-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교회, 직장, 지역)에서 ‘전인 치유’의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60세 이상

도입 (5분)

- 오랜 삶에서 작은 씨앗 하나가 오랜 시간 후에 큰 열매로 돌아온 경험을 보거나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이야기 나눔 (20분)

- 1955년 여선교회의 생일 헌금 — 그 헌금을 드린 분들은 70년 후를 상상했을까요? 이것이 헌금과 섬김에 대해 무엇을 말하나요?
- 소젠 지역 이야기가 특별히 어떻게 마음에 닿으시나요?
- 전인 치유 — 오랜 신앙 여정에서 몸만이 아닌 전 존재의 치유를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성경 연결 (10분)

시편 126:5-6 —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 1955년의 씨앗 헌금과 70년 후의 수확 — 이 시편의 말씀이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삶에 적용 (5분)

-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20-35세

이야기 들어가기 (5분)

- ‘치유’가 병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더 넓은 의미의 치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나요?

함께 생각해 봐요 (20분)

- 전인 치유(Whole Person Healing) — 신체·정서·영적 건강을 함께 다루는 것. 현대 의료 시스템이 이것을 얼마나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주민 5만 명의 탄원서 — 이것이 어떤 종류의 기관이 한 지역에서 이런 지지를 얻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하나요?
- 소젠 지역 이야기 — 한 기관의 존재가 동네 전체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것 —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08,077이 70년을 건너 다시 흘러가는 ‘계속되는 선물’ — 이런 방식의 자원 순환이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나요?

한 발 더 (10분)

- 지역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관’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오늘의 실천 (5분)

- 내가 속한 지역이나 공동체에서 전인 치유의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 있다면?

36-60세

이야기 들어가기 (5분)

- 어떤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지역 사회에서 단순한 서비스 이상의 존재가 된 경우를 보셨나요?

함께 생각해 봐요 (20분)

- 병원의 이전을 막은 것은 법이나 규정이 아니라 주민 5만 명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것이 시민 사회와 공공 기관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하나요?
- 소젠 지역 이야기 — 기관 하나의 위치가 주민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조직이나 기관의 ‘위치’ 선택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나요?
- ‘계속되는 선물’ 개념 — 조직이나 공동체가 처음에 받은 것을 다시 흘러보내는 문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전인 치유의 접근 — 조직이나 커뮤니티가 구성원의 신체·정서·사회적 건강을 함께 돌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한 발 더 (10분)

-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좋은 기관이 들어오는 것이 그 지역의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 — 정책적으로 어떤 함의가 있나요?

오늘의 실천 (5분)

-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60세 이상

이야기 들어가기 (5분)

- 오랜 삶에서 작은 시작이 오랜 시간 후에 큰 결실로 이어진 것을 보거나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이야기 나눔 (20분)

- 소젠지 역 이야기 — 한 동네의 수치심이 자부심으로 바뀐 것. 오랜 삶에서 이런 변화를 목격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 70년을 건너 돌아온 씨앗 현금 — 지금 내가 심는 것이 70년 후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의 실천 (5분)

- 오늘 모임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을 나눠주세요.

인도자 가이드

이 이야기의 핵심

이 이야기는 세 겹의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인도자의 역할은 이 세 겹을 한꺼번에 다루려 하지 않고, 그룹이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하나에 머무를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 다루는 것

- ① 전인 치유 — 신체·정서·영적 건강을 함께 돌보는 것의 의미
- ② 씨앗과 열매 — \$208,077이 70년을 건너 다시 흘러간다
- ③ 소젠지 역 — 한 기관의 존재 자체가 동네의 수치심을 치유한다
- ④ 계속되는 선물 —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문화

시리즈 내 위치와 연결

이야기 **13(재난)**: 이야기 13이 구제를 ‘풍성한 삶으로의 복귀’로 정의한다면, 이 이야기는 그 정의가 실제로 구현된 70년의 사례입니다.

이야기 **28(HIV/AIDS)**: 이야기 28이 해결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돌봄을 다룬다면, 이 이야기는 돌봄이 쌓여 기관이 되고 기관이 동네가 되는 긴 호흡의 사례입니다.

이야기 **2(아보카도 나무)**: 이야기 2의 질문 — 구조가 어떻게 이웃됨을 만드는가 — 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긍정적 답이기도 합니다.

모임 시작 방법

- ✓ 소젠지 역 이야기로 시작: “역 한 정거장을 지나서 내렸다가 되돌아 걸어가는 사람들 —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하나요?”
- ✓ 씨앗 현금으로 시작: “\$208,077이 1955년에 심어져 2005년에 같은 금액으로 다시 흘러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 또는: “전인 치유’라는 말을 들을 때 무엇이 떠오르나요?”로 시작하면 이야기 전체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주의할 순간

△ 이야기가 병원 성공 사례 소개로만 끝나는 경우 감동적인 정보 수신으로 마칩니다.

전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장면이 무엇인가요? — 소젠지 역. 그 역에서 내리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 씨앗 헌금 이야기가 헌금 권면으로 흐르는 경우 교훈적 결론이 됩니다.

전환: “이야기는 헌금을 권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선물’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가능했는가가 질문입니다.”

△ 전인 치유가 너무 거대한 개념으로 느껴지는 경우 “우리 교회와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전환: “전인 치유가 꼭 병원 규모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젠지 역 이야기처럼 — 한 기관이 동네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내 삶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면?”

△ 일본 문화나 역사 이야기로 흐르는 경우 이야기의 핵심이 사라집니다.

전환: “이야기의 배경은 일본이지만 질문은 보편적입니다. 동네에서 자기 역에서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 여러분의 지역에서 그 역할을 하는 집단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그룹별 접근

의료·복지 종사자 그룹: 전인 치유의 개념이 직업적 성찰이 됩니다. ‘나는 어떤 치유를 제공하고 있는가’ — 직접 물어봐도 좋습니다.

교회 리더십 그룹: 이 병원의 사역 구조(의료+chaplain+지역 뿌리)가 교회의 사역 방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직접 다루어도 좋습니다.

청년 그룹: 씨앗 헌금의 시간 스케일 — 70년 후를 상상하며 지금 심는 것. 단기 성과에 익숙한 세대에게 이 시간 감각이 신선한 도전이 됩니다.

이민자·다문화 그룹: 소젠지 역 이야기가 특별히 울릴 수 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내리지 못하는 경험 — 직접 물어봐도 좋습니다.

60세 이상 그룹: 1955년 여선교회의 헌금자들과 나이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심는 것이 70년 후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 이 질문이 직접적으로 닿습니다.

마무리

✓ “지금 내가 속한 곳에서 누군가가 자기 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 그 역은 어디인가요?” — 이 질문으로 닫습니다.

✓ 또는: 각자 지금 심고 있는 씨앗 하나를 조용히 떠올리고 — 70년 후 그 씨앗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지 생각해봅니다.

저자의 한 마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자세로 서는 것 자체가 이웃 사랑의 기본인가 보다.”